

“원활한 정보교류로 인쇄교육 발전기여”



인쇄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바랍니다.

2001년에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편집프로그램 관련 하계연수가 개최됐습니다. 이때 인쇄분야 교원 7~8명이 참여했습니다. 편집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개설된 것이었기에 기대와 참여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예상외로 많이 모였는데,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친목도 다지고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모임설립에 대해 발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방종관 일산직업전문학교 교사를 실무단장으로 뽑고 본격적인 모임 결성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들의 모임인데 보다 건설적인 모습을 갖추자는 의견에 따라 발전협의회로 만들게 됐습니다.

인쇄교육발전협의회라는 이름으로는 2002년에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인쇄교육발전협의회 신임 회장

서정순 교수

인쇄 관련 교원들의 모임인 인쇄교육발전협의회가 지난 7월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정기총회를 갖고 서정술 서울정보기능대학 컴퓨터디자인학과장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서정술 신임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미 3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회원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 현재는 약 3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3회 연속 결석한 회원은 탈퇴시킬 수 있는 조항을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명문화 시켰습니다.

인쇄교육발전협의회 주요 활동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친목도모를 통한 정보교류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어 회원들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쉽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가 아직은 미비해 보다 충실한 내용을 담는 것은 물론, 회원 간에 원활한 교류를 이룰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관심사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05년도 정기총회에서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를 초빙, '저작권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참여한 모든 회원의 관심과 호응도가 예상보다도 훨씬 뜨거워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도 회원들의 관심사항을 반영하는 세미나를 더욱 많이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쇄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산학협력은 꼭 필요한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그만큼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교육 일선에서 최첨단 기술만 가르치게 되면 최신기술을 곧바로 도입할 수 없는 산업현장과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앞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뒤처지지도 않은 기술,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기술과 최대한 균형을 이루고 반 발짝

정도만 앞서 신기술을 리드하는 교육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참여율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직자들에 대한 직무능력향상 교육도 매우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 지원 하에 이뤄지는 재직자직무능력 향상 교육은 현실적으로 고용보험가입업체 직원 10명만 모이면 강의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업체나 업계의 요청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업계의 전문 인력 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장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쇄교육발전협의회 목적은 친목도모를 통한 상호 정보교류에 있는 만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교류가 이뤄지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조만간 홈페이지를 개편할 생각입니다. 오프라인을 통해서 자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류가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계의 도움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금이 조성된다면 발전협의회 이름으로 조그마한 도서관을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아카데미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희망사항에 불과한 상태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차차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인터뷰: 조갑준 차장·사진: 정홍일 기자)